

브라질 아마존 우림 보호와 환경 NGO 운동: 성과와 한계,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오삼교(위덕대 경찰행정학부)**

- I. 들어가는 말
- II. 이론적 검토
- III. 아마존 우림 파괴 현황과 원인
- IV. 저항과 동원
- V. 참여와 파트너십
- VI. 시장적 개입
- VII. 결론

I. 들어가는 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생태계 교란으로 환경문제는 21세기 지구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림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흡수만이 아니라 생태계 유지, 강수량 유지 및 수질 정화, 종 다양성 보존 등 상업적 개발 이익을 증가하는 다양한 환경서비스(environmen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 우림지대는 개발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훼손되어 왔다. 특히 9개국에 걸쳐 있는 아마존 우림지대의 거의 70%가 속해 있는 브

* 이 연구는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과제로 총 2년차 과제 중 1차년도 연구결과임(KRF-2006-323-B00024).

** Sam-Gyo Oh(Uiduk University, Division of Police Administration, sgoh@uu.ac.kr), “Environmental NGO Movement in the Brazilian Amazon: Achievements, Limits, and Changing Roles”.

라질에서의 우림 파괴가 가장 심각하다. 브라질에서는 정부의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도로 건설과 이에 뒤따른 이주민의 증가, 토지 개발 및 투기, 콩이나 목축업 등 상업적 개발로 인해 지난 20년간 매년 평균 1만 8천km²의 우림이 파괴되어 왔다.

아마존 우림 보존운동은 그동안 주로 우림 거주민과 환경 NGO에 의해 주도적으로 전개되어왔다. 국내외 환경 NGO와 고무 추출농과 인디언으로 구성된 보존연합은 보호구역 지정에 앞장섰으며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을 좌절시키고 정부의 환경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보호지역의 보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였다. 그 결과 NGO의 우림보존에 대한 기여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림 파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수년간의 우림 파괴 증가는 환경 NGO가 주도해 온 우림보존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저렴한 토지가격, 낮은 노동 비용, 콩과 쇠고기 등 상품 수요 증가와 바이오연료(biofuel) 등이 아마존 우림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운동가들은 “문제의 핵심인 경제를 정면으로 맞서려 하지 않고 악당을 찾아내서 비난하거나 멸종 위험이 있는 동물을 부각시키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는 비판이다.²⁾ 브라질은 한 세대 안에 소고기와 면화, 설탕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었으며 아마존 우림의 지가가 매 4-5년마다 두 배씩 뛰고 있다. 시장이 우림파괴를 몰아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림보존 운동에 종사해 온 활동가들도 개발 드라이브로 인한 우림 파괴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³⁾

1) Barbosa(2003), Daniel Nepstad의 인터뷰 by Rhett A Butler, “An interview with Dr. Daniel Nepstad: Amazon rainforest at a tipping point But globalization could help save it”, mongabay.com June 4, 2007. ; De Mello, Neli Aparecida(2006), *Políticas territoriais na Amazônia*, Annablume, p. 238.

2) John Carter의 인터뷰 by Rhett A Butler, “Can cattle ranchers and soy farmers save the Amazon? an interview with John Cain Carter”, www.mongabay.com June 7, 2007.

3) Greenpeace의 아마존 프로젝트 책임자인 Paulo Adario는 경제가 아마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며 콩과 곡물 수출에 필수적인 BR-163번 도로의 포장으로 우림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도로 포장이 불가피한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다. Paving of road brings change in the Amazon rainforest, AP, 2005. 5. 28. news.mongabay.com/2005/0527-ap.html

그렇다면 사회운동적 환경 NGO 활동은 환경보존에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인가. 그간의 우림보존 NGO의 운동 전략은 현재 브라질 그리고 아마존의 정치경제구조 하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신자유주의 시대 개발 드라이브에 대한 환경운동의 새로운 방향은 무엇인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아마존 보존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전략의 변화, 전략의 변화를 가져온 체제와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NGO의 우림 파괴 저지와 우림 보존 노력은 얼마나, 어느 경우에 성과를 거두었는가, 최근의 우림 파괴의 지속적 경향이 시사하고 있는 NGO운동의 한계는 무엇인가, 우림 파괴저지를 위한 NGO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문제들이다.

브라질 우림 보존운동의 전개는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70년대 이후의 시대적 조류와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림 보존운동이 70-80년대에 우림 거주민의 풀뿌리 조직과 정치적 동원에 의하여 성과를 거두었다면 90년대 이후에는 정부 환경 정책에의 참여와 시장 메커니즘을 역이용한 친환경인증제 시도를 통해 새로운 운동의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의 접근방식은 7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아마존 우림보존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운동의 기본적 특성 혹은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의 자원능력, 브라질의 정치경제적 배경이 제공하는 정치적 기회구조,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운동 전략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각각의 운동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림보존 운동을 역사적으로 크게 저항과 동원, 참여, 시장개입이라는 세 가지 형태 혹은 전략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러한 구분은 운동논리에 따른 구분으로 현실에서는 세 가지 운동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아래의 세 가지 형태의 운동 방식(혹은 전략)을 그 특성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적 맥락, 체제적 특성, 운동의 자원과 능력, 브라질 국가의 정치적 기회구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저항과 동원: 우림 거주민과 국제 NGO의 연대에 기초한 인디언과 추출농의 풀뿌리 조직 건설과 정치적 동원을 통하여 보호구역 지정 등 제도적 성과를 축적하는데 성공. 그러나 정부와 기업 등 개발세력에 의한 권익 침해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참여: 정부 주관 프로젝트 및 PPG-7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하여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회를 가짐. 그러나 운동성 상실 및 관변 기구로의 포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적 동인에 의한 우림 파괴에는 속수무책.
- 시장 개입: 환경 NGO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콩, 쇠고기 등 생산품의 친환경 인증제를 시도. 그러나 아직 준비단계로 성과와 한계는 미지수임.

논의의 순서는 2장에서 환경운동 관련 행위자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의 대략적 틀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아마존 우림 파괴의 현황과 원인을 간략하게 검토할 것이다. 4장에서는 70년대 이후 아마존 우림보존 운동의 선두에 선 인디언과 추출농의 우림 파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권익보호 운동을 다룬다. 5장에서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를 전후한 환경 NGO들의 정부의 환경보호 프로젝트 참여 동향과 한계를 살펴본다. 6장에서는 세계시장에서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농기업들이 환경 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시도하는 새로운 동향을 소개하고 함축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전술한 아마존 환경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환경운동의 역할 변화가 앞으로 환경 운동의 대안적 방향 설정에 어떤 함축성을 갖는지 살펴본다.

II. 이론적 검토

II.1. 기존 연구

아마존 열대우림 보존에 대하여는 다양한 정치사회학적 분석이 있다. 브라질 아마존의 개발과 우림보존 운동의 전개과정을 정부 정책, 국제사회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원주민의 저항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 의하고 있는 Barbosa(2000)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다. Domask(1998) 는 아마존 환경운동의 발전과정을 민주화와 사회운동의 발전, 리우환 경회의, 서방국가의 국제적 압력과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 며 Kolk(1998)는 아마존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조명하면서 1992 년 리우환경회의를 전후한 브라질 환경 NGO의 폭발적 증가에 기여한 국제적 압력과 국제환경 NGO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Keck과 Sikkink(1998)는 아마존 우림보존운동에서 국제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으며 Hoefle(2000)의 연구는 아마존에서의 환경 NGO가 활동하는 브라질과 아마존 지역의 정치적 배경과 변화에 주목하고 있 다. Hochstetler(1997)는 브라질 환경운동을 사회운동의 역할(공식정치 와 비공식정치)과 목표(구체적 정책과 구조변혁)라는 이론적 틀을 활 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브라질 환경 NGO와 전통적 우림거주자들의 운동이 열대우림 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Barbosa(2003) 와 De Mello(2006)는 환경 NGO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Roue (2003)도 토착 인디언의 긍정적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고무 추출 농과 인디언의 권익 보호 투쟁에 대한 연구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Cardoso(2002)는 고무 추출농의 추출보호구역 지정과정에 대하 여, Brown and Rosendo(2000)는 고무 추출농의 정치적 동원과정에 대 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인디언의 권익 투쟁 및 토지 보유권에 대해 서는 Rodrigues(2002)와 Carvalho(2000)의 연구가 있다. Borges and Combrisson(1997)과 Amnesty International(2005)은 아마존 인디언에 가 해지는 폭력과 위협을 잘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 학자들의 아마존 연구는 특정 지역과 이슈에 대한 사례 연구는 상당히 풍부하나 아마존 보존에 있어 NGO나 환경운동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의외로 발견하기 어렵다. Picoli(2006)는 브라질 자본주의가 아마존에 확장 전개되는 과정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사회적 행위자들의 행동과 전략은 다루지 않고 있다. 다만 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아마존 토지정책 전개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De Mello(2006)의 연구에 1990년대 이후 NGO의 정책 참여활동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다.

Barbosa(2000)와 Domask(1998)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연구의 대부분이 특정 지역, 부문, 맥락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우림보존 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있어서의 운동의 주요 형태, 성과와 한계 등을 전반적으로 종합하고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여 대안적인 운동 형태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아마존 우림보존운동의 역동성을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대적 배경(민주화, 경제 세계화 진전), 우림보존 운동의 국제적 맥락(리우환경회의, 국제 NGO의 역할), 브라질 국가의 역할(대외적 취약성과 대내적 억압성) 등 운동의 형태와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주목하면서 환경 NGO운동의 역할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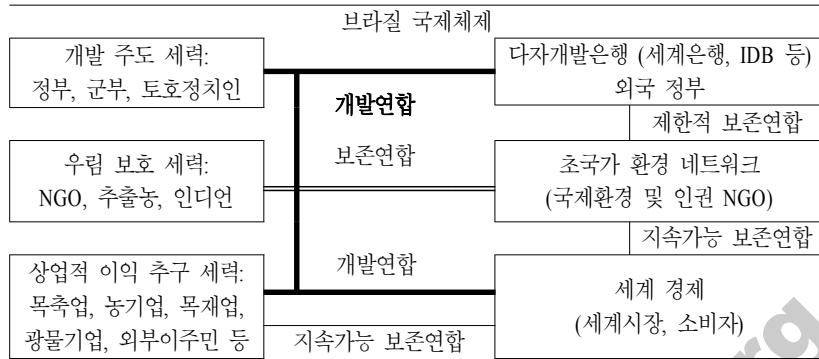
II.2. 분석 틀: 주요 행위자와 연대관계

아마존 우림보존 정치에는 <그림 1>에서 보이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 목적과 방향에 따라 공식적 비공식적 연대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연대 활동을 연합(coalition)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연합은 개개의 행위자들의 독자적인 조직과 이념과 활동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비교적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정치사회적 활동을 지칭한다. 우림 개간을 개발과 부가가치 생산으로 보는 개발연합과 우림 개간을 우림의 파괴로 보는 보존연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우림보존을 추진하는 지속가능 보존

연합이 있다. 지속가능 보존연합은 생산품이 생산과정에서 우림 파괴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인증협약에 참가한 NGO와 기업으로 구성된다.

보존연합에는 추출농, 인디언, 국내외 환경 NGO가, 개발연합에는 정부 내 개발세력과 군부, 상업적 이익추구세력과 외부 이주민들이 있다. 보존연합의 주축은 국내외 환경 NGO, 그리고 우림 파괴로 생활터전을 상실한 위기에 처하였던 추출농과 인디언들이다. 이들은 외부(카톨릭 교회, 국내외 운동 단체 및 NGO)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전국조직을 결성하고 정부와 의회에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언론의 관심을 끄는 이벤트적 시위를 통해 제도 개선과 권익보호를 획득할 수 있었다. 저항적 동원운동의 초기에 농업노조(CONTAG: 전국농업노동자연맹 *Confederação Nacional dos Trabalhadores na Agricultura*)가 추출농 조직에 기여하였으며, 추출농은 인디언과 연합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려 하였다. 1988년 헌법 제정 당시에는 국내외의 인디언 지지단체들이 보호구역 지정과 인디언 권리보호를 위해 활발한 로비를 벌이기도 하였다.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국제환경 및 인권 NGO는 오래 전부터 우림보존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자원이 부족한 브라질 환경단체나 원주민 조직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정부나 유력인사, 다자개발은행에의 접근을 주선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과 은행에 대한 접근을 통해 이들은 브라질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브라질 국내 환경단체의 부족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초국가적 환경네트워크의 존재와 역할은 인구가 희박하고 권위주의적 사회관계가 지배적인 아마존 정글에서의 우림 보존운동의 성과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림 1> 열대우림 환경정치 분석틀: 행위자와 상호작용

개발연합은 정부 내의 개발 주도세력, 군부와 상업적 이익추구세력으로 구성된다. 브라질 정부는 60년대 아마존 개발정책을 주도하면서 우림 파괴를 주도하였으며 군부는 권위주의 시절 그리고 민주화 이후까지도 안보와 성장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아마존 지하광물자원 개발과 인디언들의 권리 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도로 개설을 수반하며 도로 연변에 형성된 이주민 타운은 우림 파괴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상업적 이익추구세력(목재업자, 목축업자, 농기업, 토지투기업자 등)은 우림개간을 통해 국내외시장에 상품을 판매한다. 아마존에서 이들은 허술한 우림관리체제를 이용하여 불법 내지 탈법적 행동으로 우림 파괴를 가속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브라질 목재(주로 마호가니), 콩 및 쇠고기 수출이 최근 급증하면서 이들의 이익추구활동은 NGO의 정치사회적 활동만으로 견제하기 어려운 상업적 동력을 얻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이들 중 일부는 세계시장에서 친환경 소비자를 대상으로, 혹은 보다 포괄적인 기업 브랜드 제고차원에서 환경 NGO와 협조 하에 인증제를 채택하여 지속개발보존연합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는 걸음마단계로 아직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외국 정부나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은 브라질 정부로 하여금 우림보존 정책을 채택하도록 하는 환경적 변

수이다.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이 우림 파괴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이미지는 외교무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브라질이 IMF 등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개발 자금 대출이 절실했던 시기에는 IMF나 세계은행의 환경기준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정부나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은 이중적이다. 국제 환경 및 인권 NGO의 로비와 압력으로 브라질 정부에 아마존 보존을 위한 정책 전환 압력을 가하면서 제한적이거나 보존연합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자개발은행이 브라질 정부의 부실한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개발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연합에 가담하는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III. 아마존 우림 파괴 현황과 원인

아마존은 열대우림의 보고로 남미 9개국에 걸쳐있으며 70%가 브라질에 위치하고 있다. 브라질의 리걸 아마존(Legal Amazon)은 9개 주에 걸쳐 있으며,⁴⁾ 면적이 521만km²에 이르러 브라질 영토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지금까지 70만km² 정도 파괴된 상태로 해마다 1만~3만km²가 파괴되고 있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의 특성은 아마존 외부와 교통 연결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마투 그로수, 파라, 혼도니아 세 주의 파괴가 전체 우림 파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남부와 동부를 기점으로 한 개발 드라이브가 점차 아마존 내륙을 향해 전개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도로건설과 농장 개발을 위한 개간이 우림파괴를 주도해 온 것이다.

우림 파괴의 현상적 원인으로는 목축업의 확장, 콩 재배, 벌목, 영세민의 화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의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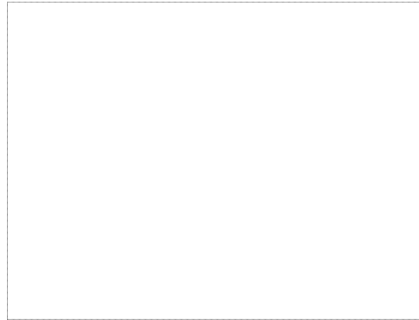
4) 리걸 아마존(Legal Amazon)은 아마존 경제개발을 위해 1953년 법률 제1806호(1953. 01. 06.)로 지정된 구역이다. 여기에는 북부의 Acre, Amazonas, Amapá, Pará, Rondônia, Roraima, Tocantins 주, 중서부의 Mato Grosso 주, 북동부 Maranhão 주의 경도 44도 이서 지역을 포함한다. 총면적은 521만km²로 브라질 전체 영토의 2/3를 넘는다. 특히 아마조나스와 파라 주는 각각 157만km²와 125만km²로 리걸 아마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 전체가 열대우림은 아니며 Cerrado(열대 사바나) 등 다른 소규모 생태계까지 포함한 면적이다.

후에는 브라질 정부의 아마존 개발정책이 있다.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을 동화정책을 통해 브라질 주류사회에 편입시키려 하였으며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아마존 개발이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식해 왔다.

<표 1> 브라질 열대우림 파괴 면적

| 기 간 | 브라질 아마존 우림 면적 (km ²) | 우림파괴면적 (km ²) | 1970년 기준 우림 잔존 면적 | 1970년 이후 전체 우림 파괴 면적 (km ²) |
|-----------|-------------------------------------|------------------------------|----------------------|---|
| 1970 이전 | 4,100,000 | 0 | 100% | |
| 1977 | 3,955,870 | 21,130 | 96.50% | 144,130 |
| 1978-1987 | 3,744,570 | 21,130 | 91.30% | 355,430 |
| 1988 | 3,723,520 | 21,050 | 90.80% | 376,480 |
| 1989 | 3,705,750 | 17,770 | 90.40% | 394,250 |
| 1990 | 3,692,020 | 13,730 | 90.00% | 407,980 |
| 1991 | 3,680,990 | 11,030 | 89.80% | 419,010 |
| 1992 | 3,667,204 | 13,786 | 89.40% | 432,796 |
| 1993 | 3,652,308 | 14,896 | 89.10% | 447,692 |
| 1994 | 3,637,412 | 14,896 | 88.70% | 462,588 |
| 1995 | 3,608,353 | 29,059 | 88.00% | 491,647 |
| 1996 | 3,590,192 | 18,161 | 87.60% | 509,808 |
| 1997 | 3,576,965 | 13,227 | 87.20% | 523,035 |
| 1998 | 3,559,582 | 17,383 | 86.80% | 540,418 |
| 1999 | 3,542,323 | 17,259 | 86.40% | 557,677 |
| 2000 | 3,524,097 | 18,226 | 86.00% | 575,903 |
| 2001 | 3,505,932 | 18,165 | 85.50% | 594,068 |
| 2002 | 3,484,727 | 21,205 | 85.00% | 615,273 |
| 2003 | 3,459,576 | 25,151 | 84.40% | 640,424 |
| 2004 | 3,432,147 | 27,429 | 83.70% | 667,853 |
| 2005 | 3,413,354 | 18,793 | 83.30% | 686,646 |
| 2006 | 3,400,254 | 14,040 | 82.91% | 700,686 |
| 2007 | 3,386,214 | 10,010 | 82.67% | 710,696 |

출처: INPE (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 <http://www.mongabay.com/brazil.html> 재인용. (2007.12.22 검색)



<그림 2> Legal Amazon을 구성하는 9개 주

<표 2> 브라질 열대우림 파괴 (주별) (단위: km²)

| 연 도 | Acre | Amapá | Amazonas | Maranhão | Mato Grosso | Pará | Rondônia | Roraima | Tocantins | Legal Amazon |
|------|-------|-------|----------|----------|-------------|-------|----------|---------|-----------|--------------|
| 1988 | 620 | 60 | 1,510 | 2,450 | 5,140 | 6,990 | 2,340 | 290 | 1650 | 21,050 |
| 1989 | 540 | 130 | 1,180 | 1,420 | 5,960 | 5,750 | 1,430 | 630 | 730 | 17,770 |
| 1990 | 550 | 250 | 520 | 1,100 | 4,020 | 4,890 | 1,670 | 150 | 580 | 13,730 |
| 1991 | 380 | 410 | 980 | 670 | 2,840 | 3,780 | 1,110 | 420 | 440 | 11,030 |
| 1992 | 400 | 36 | 799 | 1,135 | 4,674 | 3,787 | 2,265 | 281 | 409 | 13,786 |
| 1993 | 482 | 0 | 370 | 372 | 6,220 | 4,284 | 2,595 | 240 | 333 | 14,896 |
| 1994 | 482 | 0 | 370 | 372 | 6,220 | 4,284 | 2,595 | 240 | 333 | 14,896 |
| 1995 | 1,208 | 9 | 2,114 | 1,745 | 10,391 | 7,845 | 4,730 | 220 | 797 | 29,059 |
| 1996 | 433 | 0 | 1,023 | 1,061 | 6,543 | 6,135 | 2,432 | 214 | 320 | 18,161 |
| 1997 | 358 | 18 | 589 | 409 | 5,271 | 4,139 | 1,986 | 184 | 273 | 13,227 |
| 1998 | 536 | 30 | 670 | 1,012 | 6,466 | 5,829 | 2,041 | 223 | 576 | 17,383 |
| 1999 | 441 | 0 | 720 | 1,230 | 6,963 | 5,111 | 2,358 | 220 | 216 | 17,259 |
| 2000 | 547 | 0 | 612 | 1,065 | 6,369 | 6,671 | 2,465 | 253 | 244 | 18,226 |
| 2001 | 419 | 7 | 634 | 958 | 7,703 | 5,237 | 2,673 | 345 | 189 | 18,165 |
| 2002 | 730 | 0 | 881 | 1,014 | 7,892 | 7,324 | 3,067 | 84 | 212 | 21,205 |
| 2003 | 885 | 25 | 1,632 | 993 | 10,405 | 6,996 | 3,620 | 439 | 156 | 25,151 |
| 2004 | 769 | 46 | 1,221 | 755 | 11,814 | 8,521 | 3,834 | 311 | 158 | 27,429 |
| 2005 | 541 | 33 | 752 | 922 | 7,145 | 5,763 | 3,233 | 133 | 271 | 18,793 |

출처: www.mongabay.com/brazil-state_deforestation.html (검색일 2007. 12. 22.)

정부의 개발 정책 핵심은 도로건설과 광물자원 개발 프로젝트였다.

도로 건설은 아마존 우림파괴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우림파괴는 주로 70년대와 80년대 개통된 고속도로(벨렝-브라질리아, 트랜스아마조니아, 쿠이아바-포르투 벨류 고속도로 등) 연변에서 발생하였다. 1970년대와 80년대 우림을 가장 많이 파괴한 주는 벨렝-브라질리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토칸치스, 마라냥, 파라 주였다. 1978년까지 이 세 주를 합쳐 12만3,500km²가 파괴되었다. 당시 아마존 지역 우림 파괴지역의 81%가 고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Barbosa 2000, 57-59). 도로가 건설되면서 목축업(cattle ranching)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다. 일단 도로가 건설되면 도로 양쪽의 통상 50km 지점까지 이주민이 들어서면서 개간이 확대되었다. 주도로를 기점으로 작은 도로가 생선뼈(fish bone) 모양으로 확장되면서 개간된 토지는 조그만 타운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소도시 인구가 증가되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추가적 우림파괴 압력은 더욱 커졌다.

도로건설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아마존개발 계획도 우림파괴에 기여하였다. 브라질 북부 국경의 안보를 이유로 브라질 군부가 추진한 Calha Norte Project는 브라질 북부 국경 6,500km에 이르는 지역을 군부가 통제함으로써 인디언 보호구역을 축소하여 광물자원을 개발하려는 것이었다. 이 계획으로 야노마미(Yanomami) 인디언 거주지역에 사금채취업자가 몰려들어 우림을 훼손하고 Yanomami 인디언의 전통적 생활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정부의 광물자원 개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1980년의 Grand Carajas Programme은 정부의 아마존 개발 계획인 Polamazônia의 일환으로 아마존 북부의 광물 자원 개발 계획이었다. 이 지역은 80-90만km²의 면적으로 브라질 전체 영토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서 댐건설로 2,435km²의 삼림이 파괴되었고 제련소 부지도 추가로 개간되었다(Cardoso 2002, 56).

아마존으로의 이주(migration)도 우림 파괴에 크게 기여하였다. 트랜스아마조니아와 Polonoroeste, 그리고 Polamazônia의 혼도니아 정착 계획 등으로 이주한 소농들은 1983년까지 아마존 우림의 11%를 파괴하였다(Cardoso 2002, 56-57). 이들 이주민들이 경작하고 난 땅은

축산농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들은 다시 우림으로 들어가 개간을 계속하였다.

소규모 영세농의 생계를 위한 화전은 축산농장의 확산 다음으로 중요한 우림파괴 요소였다. 우림파괴의 60%가 축산농장 때문이라면 30%는 생계형 소농의 개간 때문이었다.⁵⁾ 브라질 남부의 밀과 콩 수출, 농기업(agribusiness) 발전 등은 남부의 무토지 농민들이 아마존에 이주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였다.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 구입 인센티브로 토지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다시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림 개간(파괴)를 가속화하였다.

IV. 저항과 동원

인구가 희박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문맹이 대부분인 전통적 거주민들과 이주민이나 지주들의 각종 불법 행위가 횡행하던 아마존에서 자율적 시민사회가 성장하기는 어려웠다. 대부분의 브라질 환경운동이나 NGO는 브라질 남부와 남동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대부분 도시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마존 환경운동은 이 때문에 지주나 이주민과 갈등관계에 들어선 고무 채취농과 인디언들의 생존을 위한 풀뿌리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아마존 환경운동은 이주민과 지주의 개간으로 전통적 생활 터전인 우림파괴로 생존에 위협을 느낀 고무 채취농과 인디언이 중심에 있었다. 이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동원과 조직, 항의와 시위, 로비와 국제적 연대를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해 나갔다. 특히 두 경우 모두 국제 NGO의 연대와 지원은 브라질 국내정치에서 이들 두 집단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브라질 정부에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5) Butler, Rhett A., "Deforestation in the Amazon", www.mongabay.com/brazil.html

IV.1. 고무 채취농의 동원과 추출보호구역 지정

1960년대 말 히우 브라쿠(Rio Branco)와 아시스 브라질(Assis Brasil)을 잇는 BR-317도로가 건설되면서 아크리(Acre) 주에 이주해 온 새로운 이주자들이 고속도로 연변의 우림을 구입하였다. 대부분이 목축업자인 새로운 지주들은 고무 채취농들을 자신 소유의 토지에서 축출하기 시작하였다. 고무 채취농이 떠나기를 거부하면 이들은 길과 숲속의 통로를 막았고, 농경지를 파괴하고 총잡이를 고용하여 가족들을 내쫓았다. 고무 채취농의 축출과정은 대단히 폭력적이었다. 많은 고무 채취농이 볼리비아 고무단지로 떠나거나 가까운 도시로 이주하였다.

전통적 생활 터전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고무 채취농은 카톨릭 교회와 농업노조의 지원을 받아 농업노조의 형태로 자체 조직을 시작하였다. 1975년 농업노조인 CONTAG가 아크리 주 브라질레이아(Brasileia)에 첫 지부를 설립하였으며 2년 후 시쿠 멘지스(Chico Mendes)가 샤푸리(Xapuri)에서 또 다른 노조를 결성하였다.

고무 채취농 노조는 지주들의 추방에 대항하여 대치 전략(empates: standoff)으로 맞섰다. 이는 고무 채취농들이 우림 개간지에서 벌이는 평화로운, 그러나 긴장이 감도는 점거 활동이었다. 고무 채취농들은 대치 중 개간 작업 책임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조 변호사가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대치(empate)와 노조 변호사 덕분에 고무 채취농들은 자신이 관리하던 고무단지를 떠나는 데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Cardoso 2002, 106-111).

고무 채취농은 이러한 노력으로 스스로의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고 약간의 보상까지 받아냈지만 이 정도로는 전통적 생활양식을 지켜낼 수 없었다. 이들은 민주정부 수립 반년 후인 1985년 10월 수도인 브라질리아에서 고무 추출농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확대된 정치적 공간을 이용하여 전국 조직을 건설하였다. 대회는 CONTAG본부와 Xapuri, Brasileia, Assis Brasil지역의 농업노조가 주도하였으며 130명의 고무 채취농 대표가 참가하였다. 정부 문화부 산하의 Pro-Memoria Foundation

과 Oxfam같은 국제 NGO가 경비를 지원하였다.

고무 채취농 전국대회는 여러 가지로 성공적이었다. 먼저 전국조직인 CNS(전국고무 추출농 평의회: Conselho Nacional de Seringueiros)도 창설하였다.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영구화하기 위해 추출보호구역(Extractive Reserves)이라는 대안도 제시하였다. 그 핵심은 1) 수세대 동안 거주해온 우림지역에 대한 고무 추출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2) 고무 채취농의 공동자원에 대한 공동재산권의 인정이었다. 이는 당시 브라질 법체계에 공동재산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급진적인 것이었다(Cardoso 2002, 120-121).

추출보호구역 개념은 우림보존의 요구도 포함한 것이었다. 이는 국내외의 아마존 보존 운동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국제환경 NGO와 연대하면서⁶⁾ 고무 채취농의 정치적 전략은 점차 아마존 보존을 위한 추출보호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동하였다. 전국대회를 통해 고무 채취농은 생존의 대안으로서 추출보호구역 수립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1987년 INCRA(국립농지개혁이주청: Instituto Nacional de Colonização e Reforma Agrária)의 “고무 추출농 정주 프로젝트(PAEs: Projetos de Assentamento Extrativista = Extractive Settlement Project)”로 응답하였으며 1990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추출보호구역을 지정하였다.

고무 채취농이 정부에 대한 추출보호구역 지정 요구가 성공한 것은 아마존 우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고무 채취농의 고통에 대한 언론의 보도, 그리고 MDB(다자개발은행) 캠페인을 통한 국제금융기구의 브라질 개발자금을 대한 통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Cardoso 2002, 124-125).

미국의 국제환경 NGO인 Environmental Defence Fund는 CNS지도자인 시쿠 멘지스를 초청하여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에

6) 고무 채취농은 국내외 여러 NGO들의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Ford Foundation, MacArthur Foundation,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Environmental Defence Fund, Cultural Survival, Health Unlimited, WWF, UNEP, Survival International, Sierra Club 등이 포함된다. 1985년 이미 Polonoeste(브라질서북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세계은행의 대출을 중단시킨 바 있는 국제환경 NGO들은 우림 보존 요구에서 공통점을 가진 브라질 고무 채취농과 기꺼이 제휴하였다.

서 IDB가 지원한 고속도로 건설이 혼도니아에 초래한 우림 파괴를 설명하는 기회를 주신하였다. 멘지스는 당시 IDB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BR-364도로의 아크리까지의 연장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아크리 주에서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⁷⁾ IDB는 BR-364포장을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결국 브라질 정부는 IDB가 요구한 환경 및 인디언 보호 프로그램(PMACI) 준수를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1987년 7월 멘지스는 Global 500 Award(UNEP)와 Ted Turner가 제정한 Better World Society의 환경보호메달까지 수상하여 국제적 환경운동가로 각인되었다.⁸⁾

INCRA의 “고무 추출농 정주 프로젝트(Extractivist Settlement Projects: PAEs)” 발표의 배경에는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압력이 있었다. 이어 후속조치로 1990년 4개의 추출보호구역이 처음으로 지정되었으며 1992년 리우 지구환경회의 개최를 수개월 앞두고 브라질 정부는 추가로 다섯 개의 추출보호구역을 지정하였다. 이는 80년대 후반 국제사회의 아마존 우림보존 압력을 브라질의 이미지 개선에 역이용한 것이었다.

IV.2. 인디언의 권리 증진과 인디언 보호구역 지정

인디언의 권리가 환경운동과 결합되는 부분은 인디언들의 전통적 영역이 보존되는 곳에서 우림이 보다 더 잘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인디언들의 열대우림 보호는 환경보존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생존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 환경보존보다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디언의 생활 안정과 복지는 아직 인디언 보호구역 설정을 통

7) Polonoest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브라질 정부는 BR-364를 포장하기로 하였는데, 고 무채취자들은 도로 포장에 아크리로의 이주를 급증시키고 그 결과 삼림파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1984년 혼도니아 주에서 BR-364가 개통되었을 때 그 해에만 16만 명이 몰려들었고 그 결과 그해 혼도니아는 아마존에서 3번째로 높은 우림 파괴율을 보였다(Barbosa 2000, 117).

8) 1988년 시쿠 멘지스가 지주가 보낸 총잡이에 의해 피살되자 국제사회의 관심과 분노가 고조되었다. 수많은 기자, 환경운동가, 미국 의회의원들이 시쿠 멘지스가 활동하던 아크리 주의 Xapuri를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였다.

한 우림보존과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⁹⁾.

인디언들은 도로건설과 대규모 인프라 공사로 인한 우림 침식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전통적 생활터전인 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투쟁해 왔다. 여기에서는 호라이마(Roraima) 주 야노마미(Yanomami) 인디언의 사금채취업자 축출 투쟁, 1988년 헌법에서의 인디언 보호규정 확보, 정부의 인디언 보호구역 약화 시도와 이에 대한 인디언들의 투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V.2.1. Yanomami 인디언 보호구역 보존

호라이마(Roraima) 주 서부에 위치한 Yanomami 인디언 지역에는 광산자원이 풍부하여 브라질 정부와 군부는 이 지역의 광물자원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러다 1985년 Yanomami 인디언 지역에 사금 채취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 지역의 갈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금채취업자(garimpeiros)의 침입과 이들이 들여온 술, 마약, 매춘으로 인디언의 전통적 생활 방식이 위협받고 있으며 금채취업자들이 들여온 말라리아로 Yanomami 인디언의 15%를 병사하였다.

1988년 국제사회는 Yanomami 인디언 보호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UN은 환경프로그램의 Global prize를 Davi Yanomami에 수여함으로써 Yanomami 지도자가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투쟁을 소개할 기회를 주었다. 10월에는 Survival International이 환경 및 인권 네트워크를 움직여 20개 국가의 브라질 대사관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Rodrigues 2002, 499-500). 카톨릭 교회와 브라질 NGO가 주도하는 연대조직인 Ação pela Cidadania(시민행동)는 보고서,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인디언의 참상을 국제 NGO에 알렸고 이들은 다시 자국에서 여론을 환기시켰다.

1990년 대통령에 당선된 콜로르는 미국과 유럽 순회 방문에서 브라질 정부의 인디언 정책에 비판적인 국제적 여론에 직면하였다. 귀

9) 아마존보존팀(Amazon Conservation Team) 회장인 식물학자 Mark Plotkin 박사도 아마존 열대우림의 보존과 인디언의 복지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utler, Rhett A., "An interview with ethnobotanist Dr. Mark Plotkin", mongabay.com Oct 31, 2006.

국 후 끌로르는 Yanomami 지역에서 약 4만5천명에 이르는 금 채취자들의 축출을 명령하였고 이들의 불법 활주로를 파괴하도록 하였다. 이는 1992년 브라질이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개최국으로 선정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UNCED(리우지구환경회의) 개최 전날 끌로르는 Yanomami 토지를 지속적 영토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함으로써 Yanomami 인디언 지역의 분할을 시도한 군부와 광산부문의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Yanomami 지역의 보존은 인디언의 스스로의 동원과 국제 NGO의 지원, 국제 언론의 보도와 국제적 압력의 합작품이었다.

IV.2.2. 1988년 헌법의 인디언 권익 보호

열대우림 보호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디언보호구역은 1988년 민주화 이후 첫 헌법 개정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수확이었다. 인디언의 승리는 헌법 231조와 232조에 나타나 있다. 231조는 “전통적으로 거주해온 토지에 대한 원천적 권리뿐 아니라” “인디언의 사회적 조직, 관습, 언어, 신념과 전통”의 실체를 인정하였다. 나아가 이들 자원을 보호하고 인디언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책임이라고 규정하였다. 231조 2항은 인디언보호구역 내의 자원에 대한 인디언의 배타적 사용권을 명시하고 있다. 232조는 인디언과 이들의 공동체 및 조직을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합법적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다. 인디언들을 “몸만 큰 어린아이(overgrown children)” 취급하면서 정부기구인 FUNAI(국립인디언재단: Fundação Nacional de Índio)가 인디언의 미래를 결정하던 나라에서 이는 중요한 성과였다. 인디언 조직을 인디언 권리를 대변하는 합법적 당사자로 인정함으로써 헌법은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자율적으로 주장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1970년대 후반부터 조직화되기 시작한 인디언 운동에 기원한다. 1979년 UNI(Union of Indigenous Nations)가 창설되면서 브라질인류학회(ABA: Associação Brasileira de Antropologia)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인디언의 주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¹⁰⁾ 비슷한

시기 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Environmental Defence Fund,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Environmental Policy Institute, Survival International, Oxfam 같은 국제 NGO가 인디언 권리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헌법 개정 당시에는 UNI, CAPOIB, COIAB 같은 인디언 조직과 인디언 권리를 지지하는 NGO들(CIMI, CPI, CTI, Oxfam, Cultural Survival)이 “제헌의회 인디언 권리(Indigenous Rights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Direitos Indigenas na Constituinte)”를 조직하여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활발한 로비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인디언 문제를 정치화하였으며 헌법의회 내의 온건중도파와 중도좌파의 지지를 업고 인디언 권리를 보장받는데 성공하였다(Carvalho 2000, 468-469).

IV.2.3. 인디언보호구역 약화 시도

1988년의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와 군부, 광산부문의 기업가들, 보수언론은 끊임없이 인디언보호구역 내 자원에 대한 인디언의 배타적 사용 및 점유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1988년 9월의 시행령 160호 및 같은 해 11월의 시행령 250호는 Yanomami 인디언의 전통적 점유지역을 분할하여 국립우림지대(National Forests)와 국립공원(National Park)으로 구분하여 Yanomami 인디언의 배타적 권리를 19개로 분할 축소된 인디언 지역(Indigenous area)으로 축소시켰다. 이는 Yanomami가 전통적으로 점거해 온 지역의 30%에 불과한 면적이었다. 헌법 231조는 인디언이 전통적으로 점거해 온 영토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자연자원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영구히 보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인디언 구역 내에 별도의 우림보존단위(conservation unit)를 설정하는 것은 이러한 배타적인 자원 이용권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특히 국립우림지대에서는 비인디언들의 경제활동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인디언 보호구역 설정의 의의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10) 기타 주요 지지단체로는 브라질과학적진보협회(Brazilian Society for Scientific Progress: SBPC), 브라질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디언지지위원회(Pro-Indian Commission: CPI), 인디언실무그룹(Indigenous Working Group: GTI), 인디언선교평의회(Indian Missionary Council: CIMI) 등이 있다(Carvalho 2000, 466).

1989년 7월에는 사금채취구역(Placer-mining reserves)을 설정하여 국립우림지대(National Forest) 내의 사금광산을 합법화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결국 북부 아마존 지역에서 군부와 광산부문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률을 통해 헌법을 우회하려는 파행적 수법이였다(Albert 1992, 46). 이러한 파행적 수법은 다른 인디언보호구역에도 적용되었다. 히우 네그루 강 상류의 16개 부족의 영토가 14개 인디언 지역과 11개 국립우림지대로 분할되었으며 아크리와 아마조나스 주의 6개 부족도 21개의 인디언 지역과 6개의 국립공원으로 분할되었다.

1996년 1월 브라질 정부가 발표한 법령 1775호는 인디언보호구역을 제한하려는 또 다른 시도였다. 이 법령은 제3자가 인디언 토지 획정에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인정한 것인데 이는 인디언의 토지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 것이었다. 이 결과 1,500명의 개인, 지자체, 주정부, 기업으로부터 531건의 이의가 83개 인디언 지역에 대해 제기되었다(Rodrigues 2002, 505).

인디언과 지지 단체들은 즉각 반대 행동에 돌입하였다. 법령 발표 직후, 인디언들의 대표조직인 CAPOIB의 주도로 브라질리아에서 300명의 인디언 지도자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인디언 지지 단체인 CIMI와 ISA는 법령을 비판하는 언론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강력한 국제적 반발에 직면하였다. SI(Survival International)와 Oxfam은 유럽국가들에게 세계은행이 관리하는 Rainforest Trust Fund를 브라질에 더 이상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EDF (Environmental Defense Fund)는 브라질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냈으며 Amnesty International, SI, Oxfam 등은 런던에 있는 브라질 대사관을 항의 방문하였다. 43명의 미국 하원의원이 세계은행 총재에 서한을 보내 법령 1775가 초래할 결과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유럽의회는 이 조치를 비난하는 결의안 통과시켰고 교황도 이 조치를 비판하였다. 법령 1775를 주도한 Jobim 법무장관은 국제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1996년 3월 유럽을 방문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Rodrigues 2002, 507).

FUNAI도 531개 이의조치를 모두 거부할 것을 권유하였다. 법무장관 Jobim은 FUNAI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8개 인디언 보호구역의 재설정 신청을 수용하였다. 특히 국제적 관심을 끈 것은 Yanomami 인디언보호구역과 함께 브라질 최대의 인디언 보호구역인 호라이마 주 하포자 세하 두 솔(Raposa Serra do Sol: RSS) 인디언 보호구역이었다. 이 지역에서 인디언의 배타적 활동구역을 줄이기 위한 수법은 80년대 Yanomami 영토에 대한 것과 비슷하였다. 호라이마 주의 주지사와 연방의원들은 금 채취자들로 하여금 인디언 지역 내에 정착촌을 만들도록 장려하였다. 일단 마을이 지자체로 인정되면 이들은 법적으로 인디언 지역의 경계 밖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RSS 내에 이주민의 “섬”이 만들어지면 이는 다음 단계의 인디언 지역 침입을 위한 도약대가 되었다.

미국의 EDF와 영국의 SI는 RSS지역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제적 지지를 조직하였다. EDF는 미국의회에 로비를 전개하였고 17명의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이 RSS의 보호구역 설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냈다. SI는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브라질 정부에 제출하였다. SI의 활동으로 유럽의회와 UN도 브라질 정부의 조치를 반대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압력에 대하여 1998년 12월 11일 이 지역 전체를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Rodrigues 2002, 507). 그러나 법령 1775의 대상이 된 다른 7개 인디언 보호구역은 RSS만큼의 국제적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IV.3. 저항과 동원 전략의 성과와 한계

전술한 동원과 국내외적 연대는 아마존 시민사회의 사실상의 부재와 권위주의적 정책 결정구조에서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풀뿌리 공동체의 자구책이었다. 고무 채취농과 인디언들은 가톨릭교회와 노조, 상설조직과 상근자, 전문성을 구비한 흔히 협의의 NGO로 불리는 국내외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스스로의 전국조직을 만들고 국내외 환

경 및 인권 NGO와 연대하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추출보호구역과 인디언보호구역이 창설되었으며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들 풀뿌리 운동은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저항과 동원 전략이 제도적 정비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디언 보호구역의 약화 및 개발 시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¹¹⁾ 동원과 연대에 의한 정책적 목표의 성공이 반드시 제도의 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고무 채취농은 빈곤 때문에 채취보호구역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고 있으며 인디언에 대한 지속적 폭력과 억압, 계속되는 빈곤과 보건 교육 여건의 열악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취약하고 고립된 이들 두 집단이 얼마나 환경보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이들 두 집단이 자신들의 보호구역에서 얼마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와 직결되어 있다. 이 두 집단의 풀뿌리 조직은 앞으로도 정치적 목표 달성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와 지방정부, 투자자들의 개발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취약한 이들 두 집단은 끊임 없이 외부의 지지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들 두 집단의 풀뿌리 운동에 의거한 우림 보존 기능은 국제사회의 지지 여부와 지지의 강도, 브라질 국내 정치경제구조와 정부의 정책적 동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V. 참여와 파트너십

V.1. 리우환경회의와 PPG-7

1990년대 들어 환경 NGO들이 저항과 반대를 넘어서서 정책 결정

11) 2004년에만도 PT(노동자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Lindberg Farias가 Yanomami 인디언의 독립 우려를 이유로 호라이마 소재 RSS 인디언보호구역을 축소시키는 법안을 제기한 바 있다(Folha de São Paulo, 2004. 12. 04).

및 집행 과정에의 참여를 중시하는 환경운동의 새로운 패턴이 나타났다(De Mello 2006, 111). 민주화로 인한 시민사회의 발전과 정책 결정 구조의 개방화, 환경보존을 위한 지역 NGO의 참여 필요성, 환경문제의 세계화로 인한 국제적 교류의 확대, 국제금융기구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강화 등이 배경이었다.

1990년대 초 플로르 정부의 환경에 대한 전향적 태도와¹²⁾ 1992년 리우환경회의의 개최는 브라질 환경운동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였다. 플로르 정부에서 환경운동가로서 국제적 평판을 가지고 있던 Lutzenberger가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인디언 관리기구인 FUNAI에 친인디언적 인사가 책임자로 임명되는 등 환경운동가들이 정부기구에 진출하여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다. 환경 NGO들 사이에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캠페인만으로는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으며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 참여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 혹은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라고 불리는 UN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브라질 환경운동의 성장과 제도적 강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브라질 외무부는 브라질의 환경 이미지를 개선하고 선진국들의 보존 자금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1989년부터 유치를 준비하였으며 이 브라질에서 열리게 된 것은 브라질의 적극적인 접근에 서구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호응한 결과였다(Kolk, 1998). 이 회의를 기점으로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에 대한 주권 행사를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개발 중심적 사고에서 국제적 협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전략 수정은 당시 브라질 정부가 막대한 외채와 국제수지 적자로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절실하였으며 세계은행을 움직이는 미국을 위시한 유럽 선진국들의 보존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¹³⁾

12) 그는 취임하자 BR-364포장 계획을 중단시키고 Yanomami 인디언 지역에 자금채취업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대규모 Yanomami 보호지역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그의 리우환경회의 유치 전략과 맞물려 있다.

13) 1983년부터 국제환경 NGO들은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리우회의는 일반 시민의 환경인식의 제고에 큰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브라질 NGO들에게도 단일 포럼 하에 자신들의 활동과 관심을 조율하고 같이 일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1990년 “브라질 NGO 포럼”이 창설되어 지구환경회의를 준비하였다. 1990년 6월의 첫 회의는 40개 조직이 참가하였으나 그 숫자는 1991년 800, 1992년 1,200으로 크게 늘어났다. 1992년 Earth Summit가 시작될 당시에는 모든 종류의 사회집단(고무 추출농, 노조, 환경 NGO, 인권, 보건단체, 어부, 연구소 등)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NGO들이 참가하였다.

1991년에는 G-7 정부와 브라질 정부 사이에 체결된 PPG-7(Pilot program to Conserve the Brazilian Rainforests)은 NGO참여 전략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PPG-7은 원래 1990년 G-7 휴스턴 회의에서 독일이 제안한 것으로 독일은 3억 4천만 달러의 총예산 중 가장 많은 기금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980년대 후반 우림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선진산업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결과였다. PPG-7의 목표는 “우림파괴율의 지속적 감소에 기여할 지속가능 개발을 통해 브라질의 개발 목표에 부합되는 브라질 열대 우림의 환경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a. 열대우림의 환경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의 조화 b. 우림의 엄청난 유전자원 보존 c. 아마존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d.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협력 사례 제공이었다. PPG-7은 NGO가 참여하는 소규모 지속가능 개발 프로젝트, 자연자원 관리 프로그램(환경경제구역화 정부환경기구 강화), 관리강화 프로그램(국립삼림지대에서의 지속가능한 우림개발), 과학기술 및 화재방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Fearnside 2003, 762).

Development Bank)에 대하여 이들 은행이 제공하는 환경 파괴적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중단 캠페인을 준비하였다. 미국 의회의 지원을 얻은 국제환경 NGO들은 1985년 세계은행으로 하여금 우림 파괴로 악명 높은 브라질 혼도니아 주 개발 프로그램인 Polonoroeste에 대한 대출을 일시 중단토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다자개발은행 캠페인은 취약한 시민사회가 외부 행위자(국제환경 NGO)와의 연대를 통해 국제적 압력을 동원하여 국내 정치 엘리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Keck은 이를 “부메랑 패턴”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자개발은행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Keck(1998, 135-163) 참조.

PPG-7은 우림거주민의 역할을 중시하였으며 이는 고무 추출농이나 강변 거주자(ribeirinhos) 같은 기존의 개발계획에서 소외된 아마존 거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브라질 환경청(SEMAM)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진일보한 것이었다(Cardoso 2002, 84-85). 동시에 PPG-7이 서구 선진국의 산업화와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가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은 감추고 지구온난화의 해결책을 공업 국가들의 가스 배출 축소가 아니라 아마존의 화재와 우림 파괴에서만 원인을 찾은 서구 중심적 사고의 반영이라는 비판도 있다(Bentes 2005).

PPG-7에 대하여 브라질 NGO들 중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브라질 NGO포럼(Brazilian Forum of NGOs)”을 중심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한 전통적 환경 및 개발 NGO들은 프로그램 설계에 대중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프로그램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포럼에 참여한 700여 NGO들은 브라질의 보다 개발된 남부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들로(Kolk 1998, 1477), 아마존의 우림파괴의 원인을 브라질의 정치경제 구조에서 찾았으며 PPG-7이 생태적 측면만을 중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Hochstetler 1997, 211). 반면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과 노조, 교회 관련 조직 등 아마존 지역에 뿌리를 둔 NGO들은 그러한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PPG-7의 재구성과 집행에 정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였다. 이들은 약 200여 NGO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GTA(Grupo de Trabalho Amazônica)를 구성하여 PPG-7 협의에서 NGO부문을 대표하였다¹⁴⁾.

GTA는 아마존 지역의 시민사회 조직화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2008년 6월 현재 참여 단체는 602개로 늘어났다. 이들 단체는 고무 추출농, 어부, 장인, 강변거주자, 인디언 같은 우림 거주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현재 아마존 전체에 18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GTA는

14) 리우환경회의가 준비과정에서 브라질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환경네트워크가 건설되고 있었다. FBOMS(Brazilian Forum of NGOs and Social Mov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Rede Mata Atlantica, Living Rivers Coalition, MAB(Movement of People Affected by Dams), GTA(Amazon Forest Working Group). Feferman, Flavio, *Global Greengrants Fund Brazil Case Study*, Sep 2, 2005.

단순한 NGO네트워크를 넘어서 세계은행의 아마존 화재예방 프로젝트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어 프로젝트의 일상적 운영과 감독을 맡을 정도로 전문성도 확보하였다.¹⁵⁾

V.2. 환경 NGO의 전문화와 참여: FVA의 사례

환경 NGO의 환경보존 프로그램의 설계와 집행에의 참여는 환경운동의 제도화와 전문화(professionalization)와 병행하여 전개되었다. 1990년 마나우스에서 100여명의 환경전문가 집단이 조직한 아마존 환경 NGO인 FVA(Fundação Vitória Amazônica)의 활동은 참여 중심적 환경 NGO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준다. FVA는 1993-97년간 INPA(National Institute for Amazonian Research) 및 IBAMA, 지역 공동체와 함께 국립공원 관리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1998-2003년에는 자우 국립공원(Jaú National Park) 내의 종다양성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Windows for Biodiversity”라는 프로젝트와 히우 네그루 강 연변의 원주민 조직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FVA는 우림 보존을 위해서는 원주민들의 조직적 역량 강화와 사회적 경제적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자우국립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공원의 자원을 보호하면서 전통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Fibrarte라는 식물섬유를 이용한 공예품 생산 및 판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점에서 FVA의 참여는 단순히 정부 프로그램에의 참여만이 아니라 원주민들과의 접촉과 협력을 통해 원주민들이 생태적 책임감을 가지고 우림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Fabiano Lopez da Silva FVA 대안경제프로그램 관리자 2007. 2. 14. 인터뷰).

FVA의 정부 프로그램 참여는 동시에 부족한 정부의 인력과 자원을 보강하는 의미도 있다. 2000년 UNEP 자료에 의하면 FVA는 23명

15) World Bank(2001), “Project Appraisal Document for a Amazon Fire Prevention and Mobilization Project”, (Proteger II), Feb 13, Report No: 41210-BR, p. 5.

의 전문 인력을 자우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파견하고 있는데¹⁶⁾ 환경 관리청(IBAMA)에서 227만ha의 공원을 관리하는 인력은 세 사람에게 불과하였다.¹⁷⁾ 또한 정부의 환경보존단위 구성 및 마나우스 환경법 제정과정에 참여하였다. 2004-2005년에는 정부의 아마존 보존 프로젝트 특히 아마조나스 주에서 실시하는 ARPA(Protected Areas of the Amazon Program) 및 생태회랑프로젝트(Project Ecological Corridors)의 집행에 참여하고 있다.¹⁸⁾

V.3. 성과와 한계

환경단체의 성장과 새로운 환경 전문가집단의 형성은 이러한 전문적 참여의 배경이 되었다. 이로써 환경운동은 저항과 동원의 주체에서 환경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적 환경 NGO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물론 환경운동의 동원적 투쟁적 성격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전문적 시민사회조직으로의 성장을 통해 정치적 동원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러한 전문화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운동의 소리가 작아지고 열정이 사라졌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특히 정부와 협조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포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나 민간부문과 효과적으로 협력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위상과 발언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도전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점에서 운동의 제도화는 환경단체의 재정적 자율성과 활동의 안정성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Feferman 2005, 12).

여기에 더하여 정부와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활동이 여러 성과에도

16) www.unep-wcmc.org/protected_areas/data/wh/jau.html

17) Saragoussi, Muriel and Luiz Fernando de Souza Santos(2000), "Between Common and No Man's Land: The Case of the Jaú National Park in Brazil", Presented at "Constituting the Commons: Crafting Sustainable Commons in the New Millenium", the Eigh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Common Property, May 31-June 4, Bloomington, Indiana, USA.

18) FVA, *Annual Report*, 2005, p. 15.

불구하고 개발지향적인 연방정부나 주정부 정책으로 우림 파괴 저지나 효율적 관리에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마투 그로수 주지사는 콩 재배를 장려하고 있어 우림파괴를 자극하고 있으며 아마존 거대개발계획(Eixos de Intregração e Desenvolvimento 통합개발축)은 여전히 수십 개의 메가 프로젝트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까르도주 정부 내에서도 환경 관련 부처와 기구는 고립되어 있었으며 룰라 정부에서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De Mello 2006, 243).

또한 최근 들어 정치적 경제적 이익 집단들의 조직력과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환경운동이 이들 이익집단과의 중요한 전투에서 패배를¹⁹⁾ 기록하고 있는 것도 환경운동에서 전반적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로 인한 환경운동의 무력감은 국제환경운동의 아마존에 대한 상대적 관심저하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²⁰⁾ 이는 환경운동의 참여전략이 저항과 동원 전략을 대체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VI. 시장적 개입

1990년대 이후 브라질에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자리 잡으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아마존 우림 개간 즉 우림 파괴는 지속적 양상이 되었다. 우림 파괴는 NGO의 우림보존 운동과 무관하게 경제적 요인, 즉 시장 상황 및 투자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

19) 이러한 패배의 예로는 유전자변형종자(GSMs)의 승인, 콩 재배 지역 확대, 주요 인프라 건설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0) 최근에는 국제적 재정지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브라질 환경운동을 지원하던 자금이 빈곤완화와 사회문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인구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우림외곽 지역인 북동부 빈곤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브라질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많은 국제적 재정 지원프로그램들이 효과가 가시적이고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위로부터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외국 재단의 지원은 대부분 프로젝트 직접 수행비용과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구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NGO운영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Feferman, 2005).

다. 우드홀연구소의 아마존 지역 책임자인 Daniel Nepstad 박사는 향후 20년간 상품시장의 압력에 따른 토지 이용의 변화가 열대 우림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²¹⁾ Greenpeace의 아마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Paulo Adario도 “경제가 아마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²²⁾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000년대 들어 콩과 쇠고기 등 브라질 농축산물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아마존 우림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일 것이다. 브라질은 2천만 ha의 콩 경작지에서 매년 5천만 톤 이상의 콩을 생산하고 있는 세계적 콩 재배 국가이며 미국 다음의 콩 수출국이다. 아마존 우림에서 차지하는 콩 재배면적은 그리 크지 않지만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치너림의 파괴가 급증하고 있어 최근 우림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쇠고기는 브라질이 세계 최대 수출국이며 2003년의 수출액은 15억 달러로 1995년의 5억 달러보다 불과 8년 만에 3배로 늘어났으며 수출량은 1997년의 23만 톤에서 2003년 120만 톤으로 늘어났다.²³⁾ 생산량의 80%가 아마존에 위치한 브라질 쇠고기 생산은 수출 드라이브에 의한 것이었다.

VI.1. 콩 모라토리움

콩 재배와 쇠고기 수출 증가로 이윤추구를 위한 우림 개간(파괴)이 가속화되자 NGO들은 단순히 지주나 생산자들과 대립관계를 넘어서서 우림 보존과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예 중의 하나가 2006년 7월의 “아마존 콩 모라토리움(Amazon soy moratorium)”이다. 이는 Greenpeace가 처음 시

21) Butler, Rhett A.(2007), “An interview with Dr. Daniel Nepstad: Amazon rainforest at a tipping point But globalization could help save it”, mongabay.com June 4, http://news.mongabay.com/2007/0604-nepstad_interview.html

22) “Paving of road brings change in the Amazon rainforest”, AP(the Associated Press), May 28, 2005.

23) CIFOR(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보고서. http://www.cifor.cgiar.org/Publications/Corporate/NewsOnline/NewsOnline36/beef_exports.htm?&pf=1

작하였지만 식물성유지(vegetable oil)업계가 참여하여 모라토리움을 만들어냈다.²⁴⁾

콩 모라토리움은 2006년 7월 24일 브라질식물성유지협회(ABIOVE: Brazilian Vegetable Oil Industry Association)와 전국곡물수출업협회(ANEC: National Cereal Exporters' Association)²⁵⁾ 및 소속 회원사들이 2006년 10월 이후 아마존 우림파괴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은 향후 2년간 판매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 것이다.²⁶⁾ 이 모라토리움의 목적은 경제 개발과 사회-환경적 보존을 조화시키고, 자연자원을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농업생산의 실천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는 친환경적 경작방식과 노동법 준수를 통해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환경과 개발의 보다 나은 공존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모라토리움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여러 분야의 실무 전문가 그룹이 무분별한 농업 개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 행동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콩 실무 그룹(GTS or Soybean Working Group)이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환경 NGO들(Articulação Soja Brasil, Conservation International, Greenpeace, IPAM, Nature Conservancy, WWF Brazil 등)과 ABIOVE 및 ANEC 같은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Abiove 2007, 10-13). 실무그룹은 1) 지도 작성 및 감시 그룹(콩 재배 지역 지도 작성 및 삼림 파괴 감시) 2) 교육, 정보 삼림법(사회-환경적 농업 관리 방식의 채택과 전파) 3) 제도관계 그룹(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대표와 정부기구간의 접촉)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콩 모라토리움은 대립적 관계에 있던 환경 NGO와 생산업체들이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존의 양립을 모색하면서 등장한 대안이다. NGO의 역할이 저항과 반대, 정부 정책에의 참여를 넘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우림 보존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24) Butler, Rhet A.(2007), "An interview with Dr. Daniel Nepstad: Amazon rainforest at a tipping point" mongabay.com, June 4, http://news.mongabay.com/2007/0604-nepstad_interview.html

25) ADM, Amaggi, Bunge, Cargill 등 굴지의 다국적 곡물회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26) ABIOVE(2007), *Understanding Soy Moratorium: Responsible Production*, Jul. 24.

다.

VI.2. 쇠고기 인증제 시도

환경운동 만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주와 기업의 상업적 이익 추구에 의한 우림 파괴를 막기 어렵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아마존 우림 보존 운동이 직면한 치명적 약점이었다. 마투 그로수의 농장주로서 Aliança da Terra라는 NGO를 조직한 존 카터는 이 점에서 우림 파괴를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신속히 제공되지 않으면 법규나 여론과 무관하게 조만간 우림은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주가 사유지 우림의 80%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한 브라질 삼림법²⁷⁾ 우림 파괴의 현장에서는 전혀 준수되고 있지 못하며 부패한 정부기구와 관료 때문에 법규와 무관하게 우림 파괴가 자행되는 것을 목격한 그의 직접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Aliança da Terra와 미국의 Woods Hole Research Center가 함께 만든 “사회환경책임서약서(Registry of socioenvironmental responsibility: Cadastro de compromisso socioambiental)”에 목축업자들이 기꺼이 참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카터 자신도 의외로 지주와 생산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에 놀라워하고 있다. 이 계획이 구체화되면 브라질의 모든 쇠고기는 건강하고 친환경적이며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서(certificate)²⁸⁾ 부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존 카터에 의

27) 아마존 우림은 Permanent Preservation Areas(APP)와 Legal Reserves(RL)로 나뉘어 있는데 APP에는 물과 지리적 안정성, 자연풍광과 종 다양성, 토지를 보존하는 환경적 기능을 하는 국립공원 및 인디언보호구역을 포함하며, RL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관리를 통해 목재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지역이다. 브라질 삼림법은 아직 유효하나 브라질 정부는 1998년 RL 지역의 우림식생내에 있는 사유재산의 우림보호비용을 50%에서 80%로 늘리고 세하두(Cerrado: 브라질 열대사바나)지역에서는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였다.(ABIOVE, Understanding the Soy Moratorium: responsible production, 2007. 7. 24. http://www.abiove.com.br/english/ss_moratoria_us.html)

28) 인증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목재부문에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가 1993년 26개국의 참여로 조직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3,300만 ha의 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가 인증제도에 참가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2001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

하면 이 방법은 원산지 추적이 가능한 농산품 공급망을 제공함으로써 우림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최고의 시장적 해결책을 제공한다.²⁹⁾ 요컨대 *Aliança da Terra*는 콩 모라토리움 방식을 쇠고기에도 똑같이 적용하려 하는 것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브랜드 쇠고기를 월마트나 맥도날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적 평판을 중시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친환경 브랜드를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 상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통해 우림을 보존하려는 방식인 것이다.

아마존 거주자들의 전략 변화도 있었다. 소미주나 원주민 집단들은 농기업이나 대규모 목축업자들과 대립적 관계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삼림파괴의 주역인 목장주와 농장주가 NGO와 머리를 맞대고 상품성 있는 우림 보존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연합의 성립이 진행 중에 있다.

생산과정의 친환경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이익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운동 중심적 환경보존 노력에 회의적 시선을 보낸다. 무엇보다도 지난 수십년간의 환경운동이 브라질 우림파괴의 기본 동력인 지주와 생산자의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VI.3. 성과와 한계

콩 모라토리움이나 쇠고기 인증제 시도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막아보자는 시도라는 측면에서는 환경운동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구적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환경적 압박을 신자유주의 틀 안에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확산되기 시작한 90년대

으며 1997년부터 시작된 준비과정에 국가 기구와 함께 Imazon, WWF, FOE, ISA, Greenpeace, GTA 등의 NGO가 적극 참여하였다(Carneiro 2006). 그러나 목재 벌채보다 우림파괴 비중이 훨씬 큰 콩과 쇠고기까지 인증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29) Butler, Rhet A.(2007), "Can cattle ranchers and soy farmers save the amazon? an interview with John Cain Carter", mongabay.com June 7, http://news.mongabay.com/2007/0607-carter_interview.html

이후 시장을 활용하여 환경의 보존을 촉진한다는 아이디어는 “자유주의적 환경론(liberal environmentalism)”(Bernstein and Cashore 2001), “자유시장 환경주의(free-market environmentalism)”(McCarthy and Prudham 2004), “녹색자본주의(green capitalism)”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세 개념 모두 자유주의 경제 질서 위에서 환경보존의 규범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권력은 환경보존보다는 시장과 성장 쪽에 치우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과 환경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두어질 것인가는 국제협약이나 무역협정 등의 논의과정에서 보존연합과 개발연합 간의 대결과 타협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양대 세력 간의 힘의 분포와 서로 얼마나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과거 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기에 인클로저 운동으로 자연을 사회에서 떼어내어 생산요소화 한 것처럼 최근의 신자유주의도 유전자나 새로운 작물종의 특허를 통해 자연을 사회적 관계에서 유리시켜 상품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품화와 사유화를 통해, 즉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을 관리 혹은 보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그 자체가 환경관리의 형태”이며 “환경 프로젝트”라고 볼 수도 있다(McCarthy and Prudham 2004, 275). 그렇다면 시민사회보다는 시장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권력구조는 이미 지속가능개발연합의 존재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콩과 쇠고기 부문에서 지속가능개발연합이 어떤 형식으로 구체화되든 시민사회와 초국가적 환경 네트워크의 끊임없는 동원과 감시가 유지되지 않으면 지속가능개발 연합은 언제든지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II. 결론: 환경운동의 발전 논리와 새로운 역할

VII.1. 운동 형태와 성과 및 한계

권위주의 시대 그리고 민주화 초기의 저항과 동원이라는 운동형태 혹은 전략은 카톨릭 교회와 노조, 국내외 지지 세력의 지원에 힘입은 원주민 스스로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원과 연대에 힘입어 고무 채취농과 인디언은 추출보호구역과 인디언 보호구역 지정, 인디언 권익 보호 강화라는 제도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법제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우림보호에서 문제되는 것은 법과 현실의 간극이었다. 인디언 보호구역은 항상 축소분할의 위협에 시달렸고 구역 내의 자원개발 압력은 여전히 높으며 인디언들은 여전히 지주들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채취보호구역도 채취농 스스로 빈곤 때문에 보호구역을 떠나면서 안정적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채취농과 인디언의 요구를 정치화와 로비를 통해 법제화를 하는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회적 지지구조의 결여 내지 부조화로 이러한 법제도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에서 국가의 법집행 능력이 민주국가의 전제라는 명제는 여기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의 풀뿌리 운동은 아직 충분히 자율적 구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인디언 조직의 일부가 여전히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적 네트워크와 진보적 국내정치세력의 지원으로 확보한 제도적 공간은 지주와 이주민의 끊임없는 폭력과 불법적 침투로 현실적 실천성까지 보장받지는 못하였다. 그 제도적 공간 자체도 정부 내 보수세력과 개발 세력의 지속적인 공세에 항상 취약한 상태였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리우환경회의를 기점으로 한 환경 NGO의 정부 환경보존 프로그램 입안 및 집행 참가는 민주화 이후 환경운동의 중요한 성과였다. 그러나 주정부의 개발의욕, 군부와 정부 내 개발세력, 보수적 정치세

력의 비호를 받는 지주 및 기업의 경제적 이익추구 활동은 정부의 환경보존 프로그램 참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요인들이었다. 광대한 아마존 우림 감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항상 부족하였으며 환경 NGO 참여도 주로 열대우림 생태계의 관리와 지도를 위한 예방관리적 참여(proactive participation)가 주종을 이루는 것이었다(Domask 1998). 환경 NGO의 참여는 정부 환경기구 내에서는 발언권을 행사할 수는 있었으나 지주나 기업 등 개발주도세력이나 이들을 지지하는 보수정치 세력의 압력 같은 외부적 힘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개발을 중시하는 몇몇 보수적 주정부의 개발계획은 우림 파괴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보존연합은 개발연합의 보다 광범위한 권력기반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시민 사회적,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의 힘은 특정이슈에 대한 정치적 동원과 정책적 참여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권력으로 환경운동이 세계화 시대에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아마존 개발 드라이브는 콩과 쇠고기 생산을 위한 농장의 확장, 이주민의 증가, 도로 개설을 수반하였다. 이 같은 경제적 요인과 시장의 변화는 NGO의 정치적 대응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이었다.

이 점에서 환경 NGO와 생산자 간에 시도되고 있는 콩 모라토리움과 쇠고기 인증제 시도는 지금까지 환경운동이 대결의 상대로 여겨왔던 지주나 다국적 기업, 목축업자들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 NGO와 생산자 간의 갈등구조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얼마나 화해 가능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공존의 키는 시장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NGO나 운동적 차원의 통제력을 벗어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시장을 통해 그동안 통제력 밖에 있던 개발세력의 이익추구 드라이브를 순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경제의 세계화가 널리 확산된 만큼 이제 우림보존운동은 자본주의 상품생산의 환경적 윤리화

를 통해 우림파괴를 완화시키는 새로운 제도적 윤리적 코드를 아마존 지역에 정착시켜야 하는 도전을 맞고 있다.

<표 3> 아마존 우림보존 운동의 형태와 특성

| 운동 형태/전략 | 저항과 동원 | 참여 | 시장 개입 |
|----------|--|---|---|
| 등장 배경 | ·70-80년대 권위주의 시대 및 민주화 이행기 ·원주민 인권 및 우림 보호 역할 인식 고조 | ·85년 민주화 이후, 특히 92년 리우환경회의 ·80년대 후반 아마존 우림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와 팔로르 정부의 수용적 자세 |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기 ·국제 NGO의 관심이 국제 시장에서의 생산자의 책임 있는 역할로 이동 |
| 주요 행위자 | 보존연합 (인디언, 추출농, 국내외 환경 NGO) vs. 개발연합 (정부, 군부, 기업, 지주, 이주민) | 브라질 정부, G-7, 환경 NGO | 환경 NGO,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 운동의 특성 | ·원주민 풀뿌리 조직 건설 ·원주민과 국제 NGO의 연대 ·정치적 이슈화. 언론 활용 | ·프로젝트 설계 및 집행 참여 ·파트너 전략 | ·친환경 인증제 ·NGO-생산자 파트너십 ·시장 메커니즘 활용 |
| 운동의 성과 | ·제도 개선(추출보호구, 인디언보호구역 지정, 인디언 권리 강화 등) ·운동의 지속을 위한 조직 기반 구축 | ·PPG-7, 아마존 실무팀 구성 및 프로젝트 집행 ·재정적 지원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계기 ·정부 환경기구의 제도적 능력 개선 | ·환경 NGO와 기업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지속가능개발 시도 자체에 의미 ·미지수 |
| 한계 | ·개발세력에 의한 지속적 권리 침해 및 관계법령 약화 시도 ·정치사회적 지지기반의 취약 | ·프로젝트 범주 밖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포섭(cooptation)의 우려 | ·미지수 |
| 분포 지역 | 추출보호구역 및 인디언보호구역 | 정부 부문, 프로젝트 집행 지역 (주로 국립공원 등 보존지역) | 콩 및 쇠고기 생산 지역 |

Ⅶ.2. 운동 전략의 시대적 변화와 대안적 함축성

사회운동이 기존의 정치경제적 지배구조의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

와 해결을 위한 집단적 동원의 과정이라면 아마존 우림에서의 환경 운동은 권위주의와 민주화, 시장주의의 확대라는 시대적 국제적 조류의 흐름에 대응하는 운동 전략을 전개해왔다. 아마존 환경운동은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적 동원, 민주화 시대의 정책기구 참여 단계를 거쳐 세계화 시대의 시장 메커니즘 통제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저항적 동원과 국제적 연대로 취약한 자원능력과 폐쇄적 정치적 기회구조에 대응하여 왔으며 민주적 이행기에는 활발한 조직결성과 로비활동을 통해 정치적 동원을 제도적 성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는 정부 환경기구에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정책결정과정과 집행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정치적 동원이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정치적 공간 확보와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정책기구 참여는 국가라는 권력구조에 상시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일정 범위 내에서나마 우림 관리문제를 사전 조율하고 조정하는 위치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쟁의 대상이 분명하였던 이전 시기와 달리 21세기의 아마존 우림 보존운동은 자본주의 시장기구의 공급과 수요의 역동성이라는 실체가 모호한 대상을 상대하고 있다. 동원과 참여 전략으로는 정치적 역학관계나 정부의 개발 드라이브, 시장의 힘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개별 지주나 기업 차원에서의 항의와 동원 혹은 정부차원의 규제만으로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이익 추구적 우림과파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렵게 된 것이다. 환경운동은 이 점에서 환경 윤리적 기준에 맞추어 시장 메커니즘을 친환경화 함으로써 자본주의라는 가장 구조적 차원의 권력 기체에 개입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아마존 환경운동의 이러한 전개는 환경운동이 시민사회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다시 시장으로 활동반경을 확대해왔음을 의미한다. 정치경제적 지배구조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환경운동은 전략적 선택을 달리 해온 것이다.

아마존 환경운동은 사회운동의 발전단계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운동이 초기에 목표로 하는 우림의 보존은 정

부정책이나 의회에서의 법제도의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의 실천규칙과 관행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윤리적 코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치와 제도화의 범주를 넘는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력을 정치사회적 실천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아마존 환경 NGO의 우림 보존투쟁의 역사는 운동의 궁극적 목표가 동원이나 참여를 넘어 사회적 동의의 구축과정을 통한 가치의 확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존 우림의 보존이 환경 NGO의 동원과 조직, 우림보존에 유리한 법제도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해되어 온 것은 브라질 시민사회와 정치권, 정부 내에 보존연합 지지 세력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슈의 정치화와 국제적 압력으로 얻은 일시적 승리는 아마존 시민사회의 취약성과 중앙 및 아마존 지방 정치권의 뿌리 깊은 보수 개발연합의 도전 앞에 우림 현장에서의 실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에 만연한 빈곤과 성장에의 열망, 후원주의 권력구조가 뿌리 깊은 아마존 지역의 특성 상 시민사회 내에서도 지속적인 보존연합의 구축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취약한 아마존의 시민 사회적 자원과 동원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국제 NGO 혹은 초국가적 환경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지원이다. 국제 NGO는 아마존 우림보존 운동 초기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 국제적 압력을 통한 연대활동으로 추출농과 인디언의 권익 보호와 보호구역 지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자원이 취약한 아마존 보존운동이 국제적 관심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가에 따라 운동의 활성화는 크게 영향 받았으며 이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국제환경 NGO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NGO는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제관계가 더 이상 국가중심적 시각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Keck 1998)는 주장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콩 산업과 쇠고기 산업에서의 지속발전연합의 등장에서 수행

한 Greenpeace나 기타 국제 NGO의 역할이 성공한다면 이는 초국가적 NGO 네트워크가 환경문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메커니즘 혹은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초국가적 환경 NGO 네트워크는 지구적 시민사회의 한 부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가와 시장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세계체제의 신경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NGO movements that aim to preserve the rain forests in Brazilian Amazon by examining three distinct patterns/strategies of the movement with special focus on success and limit of the movement and changing roles of the environmental NGOs. Three distinct patterns of the movement, that is, 1) protest and mobilization, 2) participation and partnership with the government, 3) market intervention, reflect the corresponding overarching features of the ruling system, that is, authoritarianism, democratization and neoliberalism.

Authoritarian period saw the environmental movement emerge out of protest and collective mobilization assisted b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GOs to cope with the repression and government-led development drive in the region. Years right after the democratization period during 1990s is characterized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environmental NGOs in the decision making structures to conduct a variety of projects with the government and other transnational institutions. Neoliberal economy entrenched in Brazil during 1990s has accelerated deforestation trend by the export of soy beans and beef to the world market, which led the environmental NGOs to come up with the certification scheme to

deter the relentless deforestation moves by the profit driven producers.

The movement experienced both the successes and the limits. Politicization of the environmental issues and international pressure aided by the international NGOs during the authoritarian period allowed relative weak environmental movement to achieve more than its political clout. However, lack of political influence in the political society of Brazil left the newly achieved rights and benefits suffer from constant encroachment by the landlords and the conservatives. Participation and partnership enabled environmental NGOs to enhance its expertise and voice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al programs. Despite this new achievement, isolation of the environmental sector within the government and development drive in the region has led the NGOs to search for new schemes such as pro-environmental certification that could reduce market driven expansion of the deforestation.

Key Words: Environmental NGOs, Amazon, Deforestation, Environmental Movement, Brazil / 환경 NGO, 아마존, 우림파괴, 환경운동, 브라질

논문투고일자: 2008. 07. 15

심사완료일자: 2008. 08. 08

게재확정일자: 2008. 08. 15

참고문헌

- 곽재성(2002), 「브라질 열대우림의 개발과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개발론의 시각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연구, Vol. 15, No. 1, pp. 147-172.
- Acsehrad, Henri(org.)(2004), *Conflitos Ambientais no Brasil*, Rio de Janeiro: Relume Dumará.
- Albert, Bruce(1992), “Indian Lands, Environmental Policy and Military Geopolitics in the Development of the Brazilian Amazon: the Case of the Yanomami”, *Development and Change*, Vol. 23, pp. 35-70.
- Amnesty International(2005), “*Foreigners in Our Own Country*”: *Indigenous Peoples in Brazil*, AI Index, AMR.
- Barbosa, Luiz C.(2000), *The Brazilian Amazon Rainforest: Global Ecopolitics, Development, and Democracy*,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_____ (2003), “Save the Rainforest! NGOs and Grassroots Organizations in the Dialectics of Brazilian Amazonia”,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55, Issue No. 178, Dec. pp. 583-591.
- Bentes, Rosieneide(2005), “A intervenção do ambientalismo internacional na Amazônia”, *Estudos Avançados*, USP, Vol. 54, pp. 225-240.
- Bernstein, Steven and Benjamin Cashore(2001), “Glob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Liberal Environmentalism: Exploring Non-domestic Sources of Influence on Canadian Environmental Policy”, in Debora L. Van Nijnatten and Robert Boardman(ed.), *Canadian Environmental Policy: Ecosystems, Politics and Process*(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Butler, Rhet A.(2007), “An Interview with Dr. Daniel Nepstad: Amazon Rainforest at a Tipping Point But Globalization Could Help Save It”, mongabay.com June 4. <http://news.mongabay.com/2007/0604->

- nepstad_interview.html
- _____ (2007), “Can Cattle Ranchers and Soy Farmers Save The Amazon? an Interview with John Cain Carter”, mongabay.com June 7. http://news.mongabay.com/2007/0607-carter_interview.html
- Camargo, Aspásia et al.(2005), *Meio Ambiente Brasil*, FGV/Instituto Socioambiental.
- Cardoso, Catarina A. S.(2002), *Extractive Reserves in Brazilian Amazonia: Local Resource Management and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Ashgate, Burlington: VT.
- Carneiro, Marcelo Sampaio(2006), “ONGs, expertise e o mercado do desenvolvimento sustentável: a certificação florestal na Amazônia brasileira”, *Novos Cadernos NAEA*, Vol. 9, No. 1, Jun, pp. 131-160.
- Carvalho, Georgia O.(2000), “The Politics of Indigenous Land Rights in Brazil”,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 19, pp. 461-478.
- De Mello, Neli Aparecida(2006), *Políticas Territoriais na Amazônia*, São Paulo: Annablume.
- Domask, Joseph J.(1998), “Evolution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Brazil's Amazonia”, Paper Delivered at the 1998 Meeting of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Sep. pp. 24-26.
- Fearnside, Philip M.(2003), “Conservation Policy in Brazilian Amazonia: Understanding the Dilemmas”, *World Development*, Vol. 31, No. 5, pp. 757-779.
- Feferman, Flavio(2005), *Global Greengrants Fund Brazil Case Study*, Sep 2. www.greengrants.org/pdf/BrazilCaseStudy.pdf
- Hochstetler, Kathryn(1997), “The Evolution of the Brazilian Environmental Movement and its Political Roles”, in Douglas A. Chalmers et al. (eds.), *The New Politics of Inequality in Latin America: Rethinking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p. 192-216.

- Keck, Margaret E.(2002), “Amazonia in Environmental Politics”, *Environment and Security in the Amazon Basin*, Woodrow Wilson Center Reports on the Americas, No. 4.
- Keck, Margaret E. and Kathryn Sikkink(1998),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 Kolk, Ans(1998),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International Policies to Protect the Brazilian Amazon”, *World Development*, Vol. 26, No. 8, pp. 1481-1493.
- Little, Paul E.(org)(2003), *Políticas Ambientais no Brasil: Análises, Instrumentos e Experienciais*, São Paulo: IEB.
- Loevens, Guenter Francisco(2005), “Conquistas e desafios dos povos indígenas na Amazônia”, May 12, Mimeo: CIMI.
- McCarthy, James and Scott Prudham(2004), “Neoliberal Nature and the Nature of Neoliberalism”, Vol. 35, *Geoforum*, pp. 275-283.
- Neder, Ricardo Toledo(2002), *Crise socioambiental: estado & sociedade civil no Brasil(1982-1998)*, Annablume.
- Picoli, Fiorelo(2006), *O capital e a devastação da amazônia*, São Paulo: Editora Expressão Popular.
- Rodrigues, Maria Guadalupe Moog(2002), “Indigenous Rights in Democratic Brazil”,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pp. 487-512.
- _____ (2004), *Global Environmentalism and Local Politics: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in Brazil, Ecuador and Indi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Theodoro, Suzi Huff(org.)(2005), *Mediação de Conflitos Socioambientais*, Garamond.
- Yashar, Deborah J.(1999), “Democracy, Indigenous Movements, and the Postliberal Challenge in Latin America”, *World Politics*, Vol. 52, No. 1, Oct. pp. 76-104.